

퍼거슨 효과(Ferguson Effects)

(1) 의미

- 퍼거슨 효과(Ferguson effect)는 경찰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신과 적대감으로 인해 경찰의 능동적 치안 활동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오히려 지역사회의 강력범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2) 주요 특징

- 2014년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마이클 브라운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주민들이 경찰의 폭압적 대응에 대해 격렬하게 시위와 폭동을 일으켰다.
- ※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사회의 뿌리깊은 인종차별과 경찰의 무관용원칙(Zero-tolerance policing)이 경찰의 공권력 과잉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깨진 창문 경찰활동(Broken-window policing)”이라는 무관용 원칙은 경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경찰과 시민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된다.
- 퍼거슨 사태 이후 일부 미국 도시에서 증가한 살인율과 범죄 발생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시위와 경찰에 대한 적대적인 반감이 범죄와 살인율 증가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퍼거슨 효과는 경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으로 경찰이 법집행을 소극적으로 수행하고 공권력 사용을 주저함으로써 오히려 범죄의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의미한다.
- 경찰활동에 대해 대중과 언론이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감시하는 것은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 혹은 재량적인 경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그에 따라 폭력 범죄의 증가로 이어진다.
- 한 연구에 따르면(Cheng and Long 2022, Journal of Public Economics), 퍼거슨시에서의 사건 이후 주변 도시에서 경찰관들의 활동(불심검문, 순찰, 체포, 편의점 주시, 우범지 감시 등)이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폭력 범죄와 경범죄(마리화나 소지 등)가 증가하였다.
- 하지만 퍼거슨 효과가 실제로 일어나는지 여부는 범죄율, 911 신고 건수, 살인, 능동적 경찰 활동이 변했는지의 연관성이지만,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언론에서 경찰의 무자비한 대응이 경찰활동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 사회의 안정 및 시민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3) 연구 현황

- 일선의 경찰관과 관리 위치에 있는 간부는 퍼거슨 효과로 인해 경찰관들이 경찰활동에 소극적으로 되면서 적극적인 의지가 약화되고, 의욕이 떨어지며, 경찰관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즐거움이 적고, 결국에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아짐. (미시간주립대와 네브라스카 주립대의 공동연구 결과)
- 2017년 미국의 남동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대중의 이미지는 범죄율을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함. 또한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업무의 정당성에 회의감을 갖게 하고 대중이 자신들을

비행으로 거짓 고발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갖도록 함. 따라서 경찰관이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위촉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퍼거슨 효과의 또 다른 특징으로 경찰의 난폭한 대응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면 시민들은 긴급 전화(미국의 경우 911) 신고율이 크게 줄어듦. 이런 신고의 회피와 주저는 살인율을 높인 악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음.

(4) 평가

- 시민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응 혹은 과도한 물리력 사용은 시민들의 저항하고 비판을 초래할 수 있음. 이는 경찰관들이 경찰활동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 위축이 되며 시민들의 감시와 비난에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음.
- 그 결과는 오히려 사회의 불안, 시민들의 경찰 신고 회피, 범죄율 증가로 이어진다는 역효과가 일어난다는 주장임.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검증된 주장은 아님.
- 한국에서 이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충분한 연구가 없음. 다만, 경찰이 각종 집회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발표하면, 경찰과 시민의 관계가 악화되고 오히려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퍼거슨 효과’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음.

(5) 최근 학술 연구 결과

(가) Cheng and Long의 연구 결과(2022)

- 경찰관의 적극적인 임무 수행 과정에서 시민(흑인)의 사망이 미국의 60개 주요 대도시에서 주간 그리고 월간별로 경찰활동과 범죄 발생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음.
- 연구 결과는 (i) 경찰관의 적극적인 경찰활동(신고가 없더라도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경찰관의 활동, 예 불심검문)에서 도보순찰 82% 축소, 불심검문 76% 축소가 일어났고, (ii) 경범죄에 대한 체포율 경감, 흑인에 대한 체포율 축소 등이 나타남. (iii) 동일 연구 시간에 살인율과 폭력 건수가 상당히 증가함.

(나) Eepak Premkumar 연구 (2022)

- 퍼거슨 효과는 경찰관에 의한 시민의 사망(예, 적극적인 무기사용으로 시민 사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심각한 충격 사건이 있는 도시와 그렇지 않는 도시들을 비교한 결과는 유사한 결론에 도달함.
- 이 연구에서도 (i) 경찰은 강력 범죄가 발생한 이후 체포 등 경찰활동을 축소하였고, (ii) 경범죄에 대한 체포율이 크게 줄었으나, (iii) 폭력범죄 혹은 절도범죄 등 강력범죄에서는 체포율이 크게 줄지는 않았음.

(다) 두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i) 전국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경찰활동에 의한 사건과 그에 따른 경찰활동 사이의 관계에서 경찰의 재량적 활동이 축소되었으나, (ii) 살인 등 폭력범죄에 대한 경찰활동은 축소되지 않음. 그러나 (iii) 경범죄에 대한 단속 축소가 왜 강력범죄(예, 살인)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는가에 대한 명백한 분석은 없음. 다만, 미국에서 광범위한 경찰 반대 시위와 살인율의 상관관계가 있는 주장이 일정 뒷받침이 있음.